



선거호외

2005년 11월 28일 (월요일)

외대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주간) 발행인 안병만 편집인 김주환 주간 허용 편집장 최은정 인쇄인 홍윤주 신문사 2173-2503, 962-7128(F) 학생기자실 (서울)2173-2504 FAX 2173-2505 (홍인)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왕산리 산 89

서울·대학원 총학생선거 막 내려, 용인은 오늘부터

용인, 오늘(28일)부터 총학 투표 시작 서울 40대 총학, 엄태웅-옹일환 조 당선 대학원 30대 총학, 이세영·윤상윤 조 당선

'변화를 향한 기본 좋은 도전 Change the hufs plus' 엄태웅(중앙·아랍 03)-옹일환(영어·영어 07)조가 40대 총학생회에 당선됐다. 개표는 지난 23일(수) 사회과학관 206호에서 진행됐으며, 재학생 7304명 중 3804(52.08%)명이 투표한 가운데 총 2084표를 얻은 엄-옹 조가 1641표를 얻은 고현호-박기영 조를 443표차로 제치고 당선됐다.

개표는 투표 마감 이후 투표를 확인 작업을 마친 7시 30분 경에 시작됐다. 개표 방식은 단대별 투표함을 차례로 개봉하고 총선관리위원들이 직접 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부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된 윤 공은 "지난 학생회 활동 중에는 학생회실에 있는 시간이 많았으며 '이번 40대 총학생회에서는 학생들과의 많은 만남을 통해 직접민주주의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된 엄 공은 "새로운 의대를 만들어갈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대학원 총학생회도 지난 24일, 25일(금) 양일간 투표를 진행했다. 이번 대학원 선거는 단선으로 이세영(정치외교학과 석사 1학기)-윤상

윤(법학과 석사2학기) 조가 출마했으며, 전체학생 중 106명(13.8%)이 투표한 가운데 100명의 찬성으로 당선됐다.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된 이세영 공은 "타 대학원에 비해 우리 대학원의 현실은 열악하다"며 "이런 현실을 단번에 바꾸려 하기 보다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이뤄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지난 13일(일)부터 시작된 용인배움터 총학생회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선거운동 기간은 27일(일)까지지만 주말을 제외한 학생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실제로 25일(금)까지기 때문에 양 선본은 더욱 선거운동에 총력을 보였다.

지난 22일(화)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최로 총학생회 후보들의 합동유세가 학생회관 앞에서 열렸으나 홍보부족으로 인해 지켜보는 학생들은 많지 않았다. 또한 지난 24일(목) 4개 연선사(외대학보, 교육방송국, 교직원집부, 야거스)의 주최로 열린 양 후보 정견토론회 역시 학생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한편 학내 곳곳에 총학생회장 후보 기호 2



▲ 기호 1번 엄태웅, 옹일환 총학생회 당선자

번 추송미(동유럽·노어 01)양과 관련해 '괜찮으시겠습니까?'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붙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대자보는 추 양이 2003년 미국 스타라이거 부대 훈련을 반대하는 시위에 참가하여 실형을 언도 받은 사실을 담고 있었다. 이 대자보는 아시아·아프리카대 학생회장 후보 최용환(인도00), 정보산업공과대 학생회장 후보 오준휘(컴퓨터공학00), 자연대 학생회장 후보 이모경(생명공학00)이 게시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추 양은 "괜찮습니다"라

는 대자보로 자신의 입장을 개진했다. 추 양은 "뜻밖의 사실에 놀란 학생들도 있었지만, 오히려 합리적이고 안타까워하시는 학생들도 있었다"고 전했다.

선거에 임박한 시점에서 서로의 공약에 대해 발전적인 토론을 해야 할 후보자들이 상대 후보의 과거를 들춰내는 식의 선거 행태를 보임으로써 학생들로부터 아쉬움을 더했다.

순보윤·채송아 기자

사설 외대학보가 서울배움터 당선선본에게 바라는 글

올해 외대학보는 학생회 내부의 회합을 계속해서 강조했다. 비운동권과 운동권으로 나뉜 총학생회와 단대 학생회를 비판하고, 보다 나은 소통을 위해 두 진영의 화해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시도했다. 단대, 과학성의 대표자들에게는 회의에 임할 때 책임감이 없고 자신과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모습을 지적했고 총학생회에는 모든 학생들이 아우러려는 노력이 부족함을 비판했다. 이러한 비판은 어느 쪽의 입장에 서기 보다는 학생조직의 분열을 막고 학교 활동해보자는 학보사 나름의 목표였다.

선거기간 동안 학보사는 이러한 목표가 악용되는 것을 보았다. 서울배움터 40대 총학생회에 당선된 기호 1번 선거본부(이하 당선선본)는 선거기간 동안 학보사가 그동안 목표했던 바를 '편파'나 '외국'이란 단어로 포장함으로써 서로의 비판을 부정하고 학보의 기능을 무디게 하려고 하였다. 학보사를 상대로 또 다른 논쟁과 댄 거르기를 지행한 당선선본의 태도를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당선선본은 여전히 취재거부 중이다. 그들이 보낸 신문에 쓴 문장처럼 중립성을 상실한 외대학보를 계속 사절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당선했으니 이제 취재에 응하겠다"는 것은 대놓고 학보를 선거에 이용했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분명 상황이 달라졌다. 당선선본은 총학생회가 되고 총학생회로서 학생들을 위해 언론의 취재에 응할 의무가 있다. "편파적이고 공정성을 상실했고 득 될 게 없다"는 말은 더 이상 취재거부의 타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외대학보를 사절하겠다'고 고백은 말에 책임이 주어질 시점이다.

이제 선거는 끝났다. 하지만 지난해와 비슷한 영국에서 양 후보간의 표차가 현격히 줄어들었다는 사실은 새로 출범할 40대 총학생회가 눈여겨봐야 할 일이다. 표식이란 것은 유권자의 검증한 판단이 들어가 있어야 때문이다.

학보사는 학내 구성원들의 소통 공간이다. 학생들과 학보사의 소통 중심에 당선선본이 어서 빨리 들어오기를 바란다. 더불어 비판을 받아들이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기 바란다. 때 쓰면 어떤 아미남 자신들에게 안 좋은 기사가 나고도 징징 대고 말도 안 해버리는 그런 행동은 이제는 총학생회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다. 잘못된 인정하고, 비판은 수용하고, 모든 일은 대화로 푸는 지혜를 발휘하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지난 호 사설에 이어 이번 선거호의 사설도 외대학보와 서울 총학 선본과의 관계를 주제로 다뤄 독자들에게 소중한 마음이다. 아울러 다음 사설은 이러한 내용이 아니기를 기대한다.

외대학보는 용인배움터 학생회 선거를 앞두고 선거호외를 발행한다. 이번호에서는 용인배움터 '정견토론회', '공익선사', '정후보 인터뷰' 등의 내용과 대학원 총학생회 '당선사'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서울배움터 총학생회 당선자는 취재거부로 소신 지 못한 것 양해바랍니다.

다음 873호는 12월 5일(월)에 발행됩니다.

김형민 기자 zeros612@hufs.ac.kr

교협, 총장 추천 후보 이사회에 올려

노조, "교협의 총장 후보자 인정 못해" 이사회, 총장 후보 추천 구성원 제안 안 뒤

총장 선임의 권한을 가진 이사회의 결정에 구성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21일(월) 점심 롯데호텔에서 열린 교수협의회(교협) 결선 투표는 총 유권자의 91%가 참여한 가운데 박철(스페인어)교수가 174표(50.58%)를, 이윤배(경영정보학과)교수가 170표를 획득해 4표차의 막연의 승부를 연출했다. 교협은 이 같은 결과를 24일(목) 이사회에 상정했다.

오후 6시부터 9시경까지 진행된 결선투표에 대해 교협측은 "직원노동조합(노조)의 지지를 예상해 정소를 당할 각 교수들에게 공지했고

정해진 시간에 투표하기 곤란한 교수들을 위해 4시부터 투표를 할 수 있게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협 회장 김종렬 교수(경제학과)는 "교내에서는 노조가 투표를 저지하기 때문에 적어도 한만큼 다같이 모여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총장선거와 관련 지난 25일(금)에 열린 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해 김오경 법인사무처장은 "총장 선출 논의를 앞으로 2번 정도 가질 예정이며 총장후보자 추천은 구성원의 제안없이 추천된 인사에 한해 심의할 생각"이라며 "다음 이

사회에서는 우선 교협이 추천한 후보자를 초청, 앞으로의 소견과 함께 공약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듣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같은 논의 이후 이사회에서 표결에 붙어 최종적으로 총장을 선임하게 되며 그 기한은 교육부 보고 기한인 12월 초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정철 노조지부장은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세워진 공영재단으로서 교협의 투표를 인정한다는 것은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24일(목) 이사회에 보면 공문에서 노조는 "외대발원터 민주적 대학운영을 이끌어갈 자격 있는 총장을 선출하는 일을 성급하게 포기하지 말아 달라"고 전하며 "교협의 총장후보를 인정하는 어떤 결정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학생회에서는 총학생회 선거기과 및 총장추천후보자에 대한 기본입장만을 반복할 뿐 해결책이나 대응방안에 대해서 밝히지 못하고 있다. 용인배움터 총학생회장 정승호(자연·환경 09)공은 "선거가 끝나는 대로 대표자들이 같이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앞으로 자체적으로 총장후보자를 선출할 생각이 있는지는 물음에는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 안 된 것은 잘못이지만 늦게 선출된다면 학내분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대표자들과 상의 후 결정하겠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김형민 기자 zeros612@hufs.ac.kr

성명서

서울 총학생회로 당선된 기호 1번의 '외대학보는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문제제기에 대한 외대학보의 입장

지난 21일(월) 40대 총학생회 선거에 당선된 기호 1번 선거본부(이하 당선선본)는 '중립성을 상실한 외대학보는 사절합니다'라는 문구가 게재된 유인물을 배포했다. 외대학보는 당선선본의 주장이 인터넷 사이트 hufslife에 게재된 '외대학보에 대한 생각'에 근거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 글에서 외대학보의 중립성을 문제 삼은 내용은 '상대 선본 후보자의 사진과 글이 게재된 것 같달못된 사진을 이용한 왜곡된 학생회 평가기사 △총학생회 추진 사업(동문토론회 강연회)을 보도하지 않은 것 등이다. 하지만, 외대학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당선선본의 주장이 부당함을 지적한다.

당선선본이 지적한 외대학보 871호는 총장선거와 총학생회 선거라는 중요한 사안을 다루고 있다. 우선, 외대학보는 자기 총장이 해야 할 중요사안들을 정리할 필요성을 인식했다. 이 가운데 재정부분에서 상대선본의 정후보가 제시한 아이디어를 실었다. 만약, 당선선본이 지난 총학생회 활동 가운데 총장선거에 대한 자신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개진했다면 외대학보는 이를 취재했을 것이다.

외대학보는 매년 총학생회 선거를 앞두고 총학생회 평가기사를 게재한다. 총학생회 선거가 지난 1년의 총학생회 활동을 평가하고, 건설적인 다음 1년을 준비하는 정책토론의 장이기 때문이다. 외대학보는 지난 871호를 통해 '민주적인 의사소통'이 부재했음을 지적하고, 학생회 체제의 복원을 강조했다. 당선선본이 지적한 871호 총학생회 평가기사가 이러한 논지에서 벗어나, 왜곡된 의도가 있을 수 없다. 또한, 위 기사의 자료사진은 당선선본이 지적한 바와 달리, 성사되지 못한 '정기학생총회' 사진이다. (이는 외대학보 865호에도 게재되었다)

동문관련소식은 총학생회와 원만한 취재협조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외대학보가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부분이다. 동문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외대발전의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문초청강연회가 외대학보를 통해 보도되지 못한 점은 성명서를 빌어 동문들과 독자들에게 정중한 사과를 올린다.

당선선본이 지적한 외대학보 871호는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에서 제작되었다. 또한, 세부적인 기사들도 왜곡될 일이 없게 되었다. 하지만, 당선선본은 백담산 문제제기와 거둬들인 대화요구와 취재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외대학보는 다음과 같이 당선선본에게 요구한다.

첫째, 당선선본은 지난 선거과정에서 행한 부당한 주장과 행동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라!

둘째, 당선선본은 조속히 외대학보의 취재요구에 응하라!

셋째, 당선선본은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실현하고, 학생회 재건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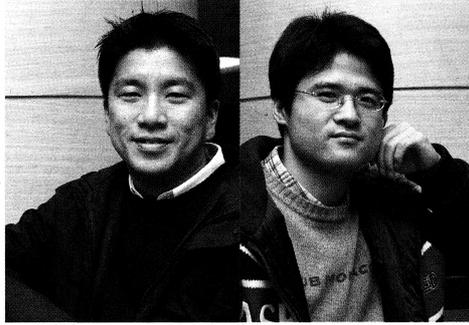
민족자주언론
외대학보

대학원 총학생회 당선자 인터뷰 - 이세영(정치외교학과 석사 1학기) 총학생회장

“진보적 학술 풍토 조성에 힘쓰겠다”

당선소식은 ‘열심히 하겠다’는 말을 가장 먼저 하고 싶다. 우리 대학원의 현실은 타 대학원에 비해 많이 열악하다. 단번에 모든 것을 바꾸기보다는 최대한 할 수 있을 만큼 이워내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이번 학생회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노력이 대를 이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대학원이라는 특성을 살려 학교 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학문적 성과를 많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외대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과 발전해야 하는 부분 역시 외대의 한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 생각한다.



▲ 이세영(정치외교학과 석사 1학기) ▲ 윤상원(법학과 석사 2학기)

주요 정책사업	학술·연구지원 사업
1. 대학원 건물 리모델링 완성	1. 기초강좌
2. 학문후속세대 지원사업	▶ 방학 중 논문 작성 및 SPSS 강좌 실시
▶ 박사후(Post-Doc)과정 지원 프로그램 마련 및 예산 확보	▶ 학문 영역별 필수 기초강좌(어문학, 사회과학 기초강좌) 실시
▶ 석·박사TA(Teaching Assistance)	2. 전문 기획강좌
3. 조교제도 실행	3. 대중강연
4. 장학금 제도 개선	4. 초청강연 지원
5. 논문작성실 확보	▶ 원하는 강연회 기획, 초안 작성 → 총학생회에 다뤄야 함 → 예산지원 → 홍보 및 기타 부대 사항 준비 → 강연 개최
	5. 세미나룸 지원 프로그램
	6. 학술적 나눔 행사

선거에 출마하게 된 계기는 학부생 때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일이라는 신념을 갖게 됐다. 물론 학부 학생회 때와는 다른 점들이 많지만, 공공의 이익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대학원원 만큼 진보적 학술 풍토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

내년 한해의 각오는 앞서 말했지만 진보적 학술 풍토를 조성하는 데에 집중하고 싶다. 또한 다양한 학술강좌로 학부생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추진하겠다. 좋은 학술강좌가 있어도 재정상 어려움이 많았던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외대 발전을 위한 대학원 총학생회의 역할은

임선현 기자
jroworld@hufs.ac.kr



40대 총학생회 선거 평가

40대 총학, 여론 통합 선결 과제

40대 총학생회선거가 끝났다. 투표는 22,23일 양일에 걸쳐 진행됐다. 투표인원이 전체 재학생의 50%를 넘어 연정투표 없이 개표에 들어갔지만 절반을 간신히 넘는 학생들만 참여해 1년을 이끌어갈 대표자를 뽑는 선거에 아쉬움을 남겼다. 개표는 중선권위위원회가 직접 투표를 개봉하고 투표용지를 하나하나 세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선거기간동안 양선본이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지만 비운동권 운동권의 대립이 있었고 그 대립이 스라이프에서는 서로를 비방하는 글로 이어졌다. 이러한 점들이 이번 선거가 화합이 아닌 갈등으로 치달았다. 학생들의 투표결과가 지난 학생회를 평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비운동권이라는 기치를 들고 나온 지난 39대 총학생회 ‘change the hufs’는 상대후보를 1300표 가량의 표차로 학생들의 높은 지지를 받으며 당선됐으나 이번 ‘change the hufs plus’는 상대후보외의 표차가 440표 작년에 비해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보

여 학생회가 지난 학생회를 간접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선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승패를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승자는 패자를 존중해주고 패자는 승자를 축하해주는 글이 아닌 서로를 비방하는 글이 스라이프에서 난무하고 있다. 이 같은 모습들은 40대 총학생회가 지난 39대 총학생회와 별반 다르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한 분열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힌다. 40대 총학생회는 이 같은 것을 해결하고 내년을 맞이해야 할 것이다.

순보윤 기자
open05@hufs.ac.kr

각 단대 학생회장 선거 및 자치기구선거 일정

단대	후보자	서울배움터	용인배움터	후보자	총학생회
영예대	후보자	정우진(04) 김민태(04)	기회1 정우진(04)이 부 박현민(02)이 기회2 정 김민태(04)이 부 박현민(02)이	후보자	총학생회
	투표일	28,30일	28~30일	투표일	
법대	후보자	이경원(04)	정희정(04)	후보자	일문대
	투표일	당선	28~30일	투표일	
서양대	후보자	정성진(표류투표) 03 부지현우(노어 04)	기회1 박은식(국제경영 99) 기회2 강태우(경영정보 00)	후보자	경성대
	투표일	당선	28~30일	투표일	
중앙대	후보자	미정	오준희(법학대학 00)	후보자	정보산업공과대
	투표일	12월 7,8일	28~30일	투표일	
상경대	후보자	이원희(국제통상 04)	이요경(생명공학 00)	후보자	지전대
	투표일	28,30일	28~30일	투표일	
사회대	후보자	김이리(신학 03)	유영준(휴머니어 00)	후보자	동유럽대
	투표일	28,30일	28~30일	투표일	
사범대	후보자	미정	기회1 윤환식(특수언어 01) 기회2 백연호(스페인어 01)	후보자	서유대
	투표일	미정	28~30일	투표일	
동아리 연합회	후보자	정 이근희(국제통상 03) 부 조영호(스페인어 03)	최용환(인도어 00)	후보자	아시아·아프리카대
	투표일	당선	28~30일	투표일	
공과대	후보자	김현우(컴퓨터공학 00) 부 김태준(디자인공학 00) 부 정영준(산업정보공학 00)	기회1 정 현준(산업정보 00) 기회2 정 이근희(산업정보 00) 부 정영준(산업정보 00)	후보자	동아리연합회
	투표일	28~30일	28~30일	투표일	
생명대	후보자	국재정	김재정	후보자	생물학동조합 학생위원장
	투표일	30일	29일	투표일	
사대	후보자	불어과 이태리(이과) 부 박인성(01)	포르투갈어과 조성준(04)	후보자	타 학과
	투표일	28일	28일	투표일	
동대	후보자	중국어과 임어과	타 학과	후보자	미정
	투표일	미정	미정	투표일	
후보지	후보자	이준태(04)	고현우(04)	후보자	미정
	투표일	당선	당선	투표일	

각 단대 학생회장 선거 일정

단대	후보자	투표일	후보자	투표일
사회대	후보자	안민정(법학부)	후보자	한동우(04)
	투표일	당선	투표일	당선
상경대	후보자	국재정	후보자	국재정
	투표일	30일	투표일	29일
사대	후보자	불어과 이태리(이과) 부 박인성(01)	후보자	김인성(04)
	투표일	28일	투표일	28일
동대	후보자	중국어과 임어과	후보자	이준태(04)
	투표일	미정	투표일	미정

용인배움터

후보자	투표일	후보자	투표일	후보자	투표일	후보자	투표일
이은성(04)	28~30일	우지현(04)	28~30일	배우진(01)	28~30일	이은성(04)	28~30일
우지현(04)	28~30일	배우진(01)	28~30일	이은성(04)	28~30일	우지현(04)	28~30일
배우진(01)	28~30일	이은성(04)	28~30일	우지현(04)	28~30일	배우진(01)	28~30일
이은성(04)	28~30일	우지현(04)	28~30일	배우진(01)	28~30일	이은성(04)	28~30일
우지현(04)	28~30일	배우진(01)	28~30일	이은성(04)	28~30일	우지현(04)	28~30일
배우진(01)	28~30일	이은성(04)	28~30일	우지현(04)	28~30일	배우진(01)	28~30일
이은성(04)	28~30일	우지현(04)	28~30일	배우진(01)	28~30일	이은성(04)	28~30일
우지현(04)	28~30일	배우진(01)	28~30일	이은성(04)	28~30일	우지현(04)	28~30일
배우진(01)	28~30일	이은성(04)	28~30일	우지현(04)	28~30일	배우진(01)	28~30일
이은성(04)	28~30일	우지현(04)	28~30일	배우진(01)	28~30일	이은성(04)	28~30일
우지현(04)	28~30일	배우진(01)	28~30일	이은성(04)	28~30일	우지현(04)	28~30일
배우진(01)	28~30일	이은성(04)	28~30일	우지현(04)	28~30일	배우진(01)	28~30일
이은성(04)	28~30일	우지현(04)	28~30일	배우진(01)	28~30일	이은성(04)	28~30일
우지현(04)	28~30일	배우진(01)	28~30일	이은성(04)	28~30일	우지현(04)	28~30일
배우진(01)	28~30일	이은성(04)	28~30일	우지현(04)	28~30일	배우진(01)	28~30일
이은성(04)	28~30일	우지현(04)	28~30일	배우진(01)	28~30일	이은성(04)	28~30일
우지현(04)	28~30일	배우진(01)	28~30일	이은성(04)	28~30일	우지현(04)	28~30일
배우진(01)	28~30일	이은성(04)	28~30일	우지현(04)	28~30일	배우진(01)	28~30일
이은성(04)	28~30일	우지현(04)	28~30일	배우진(01)	28~30일	이은성(04)	28~30일
우지현(04)	28~30일	배우진(01)	28~30일	이은성(04)	28~30일	우지현(04)	28~30일
배우진(01)	28~30일	이은성(04)	28~30일	우지현(04)	28~30일	배우진(01)	28~30일
이은성(04)	28~30일	우지현(04)	28~30일	배우진(01)	28~30일	이은성(04)	28~30일
우지현(04)	28~30일	배우진(01)	28~30일	이은성(04)	28~30일	우지현(04)	28~30일
배우진(01)	28~30일	이은성(04)	28~30일	우지현(04)	28~30일	배우진(01)	28~30일
이은성(04)	28~30일	우지현(04)	28~30일	배우진(01)	28~30일	이은성(04)	28~30일
우지현(04)	28~30일	배우진(01)	28~30일	이은성(04)	28~30일	우지현(04)	28~30일
배우진(01)	28~30일	이은성(04)	28~30일	우지현(04)	28~30일	배우진(01)	28~30일
이은성(04)	28~30일	우지현(04)	28~30일	배우진(01)	28~30일	이은성(04)	28~30일
우지현(04)	28~30일	배우진(01)	28~30일	이은성(04)	28~30일	우지현(04)	28~30일
배우진(01)	28~30일	이은성(04)	28~30일	우지현(04)	28~30일	배우진(01)	28~30일
이은성(04)	28~30일	우지현(04)	28~30일	배우진(01)	28~30일	이은성(04)	28~30일
우지현(04)	28~30일	배우진(01)	28~30일	이은성(04)	28~30일	우지현(04)	28~30일
배우진(01)	28~30일	이은성(04)	28~30일	우지현(04)	28~30일	배우진(01)	28~30일
이은성(04)	28~30일	우지현(04)	28~30일	배우진(01)	28~30일	이은성(04)	28~30일
우지현(04)	28~30일	배우진(01)	28~30일	이은성(04)	28~30일	우지현(04)	28~30일
배우진(01)	28~30일	이은성(04)	28~30일	우지현(04)	28~30일	배우진(01)	28~30일
이은성(04)	28~30일	우지현(04)	28~30일	배우진(01)	28~30일	이은성(04)	28~30일
우지현(04)	28~30일	배우진(01)	28~30일	이은성(04)	28~30일	우지현(04)	28~30일
배우진(01)	28~30일	이은성(04)	28~30일	우지현(04)	28~30일	배우진(01)	28~30일
이은성(04)	28~30일	우지현(04)	28~30일	배우진(01)	28~30일	이은성(04)	28~30일
우지현(04)	28~30일	배우진(01)	28~30일	이은성(04)	28~30일	우지현(04)	28~30일
배우진(01)	28~30일	이은성(04)	28~30일	우지현(04)	28~30일	배우진(01)	28~30일
이은성(04)	28~30일	우지현(04)	28~30일	배우진(01)	28~30일	이은성(04)	28~30일
우지현(04)	28~30일	배우진(01)	28~30일	이은성(04)	28~30일	우지현(04)	28~30일
배우진(01)	28~30일	이은성(04)	28~30일	우지현(04)	28~30일	배우진(01)	28~30일
이은성(04)	28~30일	우지현(04)	28~30일	배우진(01)	28~30일	이은성(04)	28~30일
우지현(04)	28~30일	배우진(01)	28~30일	이은성(04)	28~30일	우지현(04)	28~30일
배우진(01)	28~30일	이은성(04)	28~30일	우지현(04)	28~30일	배우진(01)	28~30일
이은성(04)	28~30일	우지현(04)	28~30일	배우진(01)	28~30일	이은성(04)	28~30일
우지현(04)	28~30일	배우진(01)	28~30일	이은성(04)	28~30일	우지현(04)	28~30일
배우진(01)	28~30일	이은성(04)	28~30일	우지현(04)	28~30일	배우진(01)	28~30일
이은성(04)	28~30일	우지현(04)	28~30일	배우진(01)	28~30일	이은성(04)	28~30일
우지현(04)	28~30일	배우진(01)	28~30일	이은성(04)	28~30일	우지현(04)	28~30일
배우진(01)	28~30일	이은성(04)	28~30일	우지현(04)	28~30일	배우진(01)	28~30일
이은성(04)	28~30일	우지현(04)	28~30일	배우진(01)	28~30일	이은성(04)	28~30일
우지현(04)	28~30일	배우진(01)	28~30일	이은성(04)	28~30일	우지현(04)	28~30일
배우진(01)	28~30일	이은성(04)	28~30일	우지현(04)	28~30일	배우진(01)	28~30일
이은성(04)	28~30일	우지현(04)	28~30일	배우진(01)	28~30일	이은성(04)	28~30일
우지현(04)	28~30일	배우진(01)	28~30일	이은성(04)	28~30일	우지현(04)	28~30일
배우진(01)	28~30일	이은성(04)	28~30일	우지현(04)	28~30일	배우진(01)	28~30일
이은성(04)	28~30일	우지현(04)	28~30일	배우진(01)	28~30일	이은성(04)	28~30일
우지현(04)	28~30일	배우진(01)	28~30일	이은성(04)	28~30일	우지현(04)	28~30일
배우진(01)	28~30일	이은성(04)	28~30일	우지현(04)	28~30일	배우진(01)	28~30일
이은성(04)	28~30일	우지현(04)	28~30일	배우진(01)	28~30일	이은성(04)	28~30일
우지현(04)	28~30일	배우진(01)	28~30일	이은성(04)	28~30일	우지현(04)	28~30일
배우진(01)	28~30일	이은성(04)	28~30일	우지현(04)	28~30일	배우진(01)	28~30일
이은성(04)	28~30일	우지현(04)	28~30일	배우진(01)	28~30일	이은성(04)	28~30일
우지현(04)	28~30일	배우진(01)	28~30일	이은성(04)	28~30일	우지현(04)	28~30일
배우진(01)	28~30일	이은성(04)	28~30일	우지현(04)	28~30일	배우진(01)	28~30일
이은성(04)	28~30일	우지현(04)	28~30일	배우진(01)	28~30일	이은성(04)	28~30일
우지현(04)	28~30일	배우진(01)	28~30일	이은성(04)	28~30일	우지현(04)	28~30일
배우진(01)	28~30일	이은성(04)	28~30일	우지현(04)	28~30일	배우진(01)	28~30일
이은성(04)	28~30일	우지현(04)	28~30일	배우진(01)	28~30일	이은성(04)	28~30일
우지현(04)	28~30일	배우진(01)	28~30일	이은성(04)	28~30일	우지현(04)	28~30일
배우진(01)	28~30일	이은성(04)	28~30일	우지현(04)	28~30일	배우진(01)	28~30일
이은성(04)	28~30일	우지현(04)	2				

용인배우다 27대 총학생회 선거 후보자 정견토론회

양 후보, 왕산 분리운영 · 복지사안 한 목소리

기업 영입 등 일부 사안에서 이견 ... 외대 발전 공동의지 재확인

일시: 11월 24일(목)
장소: 후북관 1층 학생식당
참석: 기호 1번
 정후보 김준식 (아시아프리카·인도어 99)
 부후보 이세호 (자연·환경 03)
 기호 2번
 정후보 정선교 (정보산업공·디지털정보공학 99)
 부후보 신익서 (서유럽·영어 01)
사회: FBS 윤민수 극장
패널: 외대학부사 김형민 기자
 디카기사 양은애 기자
 고지편집부 이민하 편집위원
 FBS 여대영 국원
순서: ① 양 후보 기조발언
 ② 공동 질문 및 개별질문
 ③ 4개 언론사 공동질문
 ④ 양 후보간 상호토론
 ⑤ 객석질문
 ⑥ 정리 발언

※ 기호 1번 - 1번
 기호 2번 - 2번
 1 - 2: 1번 후보가 2번 후보에게 질문
 2 - 1: 2번 후보가 1번 후보에게 질문

서울 배움터와의 분리 문제

1번 재정과 행정 분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학교에서 내는 수업 예산이 이문동의 정설예산으로 편입과 사용되고 있다. 왕산의 학생들이 낸 돈은 왕산만을 위해 왕산의 발전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 행정과 재정 분리가 시급하다 생각한다.

2번 왕산의 독립적인 재정, 행정 분리는 기호 1번과 우리가 공통적으로 내세운 공약인 만큼 중요한 사안이다. 우리가 내는 등록금이 많은 양이 이문동 발전에 쓰이고 있다. 또한 현재 이문동 상황은 교수님과 많은 학생들이 동의하시며 발전 가능성이 없다. 이 기적일지 모르지만 외대발전을 위해서는 왕산이 발전해야 한다.

등록금 문제

2번 어문계보다 자연계가 많이 내고 자연계보다 공대생이 더 많이 낸다. 등록금에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낸 만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 학교 재단에 돈이 많이 있는 것과 외부투자가 적기 때문에 외부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낸 등록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또 이렇게 쓰였으니 내년에 어떻게 쓰여야 할지 분석해서 학우들과 함께 내년 등록금 인상률과 이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정해야 한다.

1번 등록금 의존율이 83%에 이른다. 높은 등록금 의존율로 인해 당연히 다음 해 예산 편성 시 등록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다. 환원률도 다른 수도권 10개 대학 평균치보다 낮은 수치인 117%에 불과하다.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기본적으로 되어야 할 것은 서울 배움터와 예산과 및 대학협력처를 분리하는 것이다. 분리 후 타 대학 대부총장제를 적극 도입하고 21세기 외대발전위원회와 학교 기금 조성 위원회를 유지하여 고대, 연대와 같이 의존율을 30%로 낮추고 재단 전입금을 확보시켜야 한다.

교육과정

2번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상대평가제는 의미가 없다 본다. 대학교는 교육기관이다. 기업과 같이 경쟁을 하는 곳이라 교육육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자신이 노력한 만큼 성과를 얻어야 한다. 그래야 더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1번 후보 측의 '학점포기제'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점을 받은 학생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은 학점을 받더라도 포기하는 사람이 생기고, 학



정미 떨어지던지다 공부할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1번 졸업학점이 하향된다라는 말은, 취업공부나 토익공부 등 각종 언어공부를 더 할 수 있고 시간적 여유를 줄 수 있다는 의미다. 학점포기제는 취업 시 경쟁력을 상승시킬 수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학점포기제와 졸업학점하향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다.

스쿨버스 문제

1번 우리학교 스쿨버스의 가장 큰 문제는 수요와 각 노선의 공급이 매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입생 등록 시 통계를 낸 후 인원별로 각 노선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총장선거에 대한 생각

2번 학교의 가장 큰 책임자를 선출할 때에



▲ 기호 1번 김준식·이세호 후보

또한 심야 스쿨버스 노선이 강력히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는 밤 11시에 출발하는 문화노선과 영동포 노선을 생각했다. 일산이나 고양시 등에 사는 학생들이 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비롯하여 동아리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2번 계속해서 제기되는 사안이다. 우리는 1번 후보 측과 많은 부분을 공유 할 수 있다. 야간 심야버스는 반드시 필요하고 스쿨버스 증차도 역시 필요하다.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실제로 스쿨버스를 이용하는 당사자의 의견을 물어 의견을 조정하도록 하겠다. 만약 스쿨버스가 안 된다면 노선부사라도 늘리도록 하겠다.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왕산만의 대외협력처를 만들어 지금 들어오지 못하는 60번이나 1113번 버스, 기호 1번 선분에서 말한 안양, 수지 노선 등 다양한 협력으로 스쿨버스 문제를 해결하겠다.

취업대책

1번 이·공계 뿐 아니라 어문계열의 취업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공계 뿐 아니라 특수어과에 상응하는 '특수어과 발전위원회'를 주장한다. 각 전공별로 성격에 맞는 취업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한 각종 스타터 지원금을 늘리는 것으로 취업 문제를 해결하겠다.



2번 그보다 개인의 이점만을 높여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자신의 내일 배움을 높일 수 있는 특강이나 졸업준비 프로젝트를 만들겠다. 이번이 우리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환학생 제도가 활성화 되고, 사회적으로 외대 교환학생에 대한 긍정적인 소문이 나게 되면 취업이 어려운 어문계 학생들에게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공대생들의 경우 '공학인 증명'을 추진하려고 한다. 자기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확실히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

2번 대학생은 지성인이라고 한다. 지성인은 배운 사람이고, 배운 사람은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 한다. 우린만 잘 먹고 잘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대학생일수록 사회의 약자나 소외된 사람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 자신의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나 뿐만 아니라 남도 생각할 줄 아는 폭넓은 대학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세민전

2번 세민전에서는 비어있는 학생들의 소외 문제를 제기 되어 있다. 물론 학술제를 진행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함께 하는 축제 만들고 싶다. 아울러 교환학생을 확충하



▲ 기호 2번 정선교·신익서 후보

여 외국인들과 함께 참여한다면 좀더 풍성한 행사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1번 독일의 바우하우스라는 개념을 말하고

2번 이 임정은 공감하지만 노조가 파업까지 가는 것에는 반대했다. 다행히 파업까지 이어지지 않았지만, 문제는 앞으로의 총장 선출 문제이다. 지난 4년간 총장선출에 관한 활동이 적극적으로 없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총장선거에 임박해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잘못 된 것이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지금 여기서 어떤 상을 규정하는 것 보다는 3주체가 가장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과 구체적 방안을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정치 참여문제

1번 사회에 진출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한다면 외대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걱정된다. 물론 함께 어울리는 것이 중요한 만큼 개개인들의 비전과 꿈을 실현하는 공부도 중요하다.

2-1은 대입 유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설명해 달라.

상호토론

2-1: 대입 유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설명해 달라.

1번 두 가지 방향으로 설명하고 싶다. 대입 유치를 분명 어려운 점이 많지만, 외대로서 메리트는 갖는 부분이 많다. 현재 떠오르고 있는 브릭스 사업에 있어 LG화학의 경우



▲ 기호 2번 정선교·신익서 후보

위탁교육 등 많은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왕산은 특히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 등 실제로 기업들과 많이 접촉하고 있다. 대외부

2-1(반박): 총장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대입유치에 대한 내용이 없다. 총장님과 의견이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할 생각인가. 그리고 대학은 교육기관이다. 선공관대를 상성이 유지하고 나서 등록금이 1%에 8%씩 증가하고 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번총장이 먼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라도 학생회가 관찰시킬 수 있다고 본다.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단 전입금을 늘릴 수 있도록 재단을 유지하는 것이다. 등록금 1, 2만원도 중요하지만 환원율도 중요하다 고 본다.

1-2: 기숙사 등 많은 사립들, 등록금의 준율이 높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추진 할 것인가

2번 1번이 말한 것처럼 대입 유치를 통해 자원을 확충한다거나, 대입 유치를 유지하는 것은 일단 실현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우리가 제시하는 대안은 학교 측에서 추진하는 자폭용 이전 보다 우리 학교가 갖고 있는 많은 부지를 처분한다거나 여러 수익사업을 통해 재정을 확충하고 등록금 의존율을 낮출 생각이다.

1-2(반박): 부지를 매각한다고 해서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2번 외부 재원의 유입 등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은 조상모사라고 생각한다. 내가 사장의 임직이라 가정해보자. 준비된 사원을 뽑겠는가, 그렇지 않은 사원을 뽑겠는가, 우선은 교환학생 유치를 더욱 활발히 하고, 학교의 경쟁력을 더욱 높인 뒤에 외부의 재원을 유치해야 한다. 그 과정은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

2번 외부 재원의 유입 등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은 조상모사라고 생각한다.

2번 외부 재원의 유입 등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은 조상모사라고 생각한다. 내가 사장의 임직이라 가정해보자. 준비된 사원을 뽑겠는가, 그렇지 않은 사원을 뽑겠는가, 우선은 교환학생 유치를 더욱 활발히 하고, 학교의 경쟁력을 더욱 높인 뒤에 외부의 재원을 유치해야 한다. 그 과정은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

